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 제 166 호

2017 년 9 월 18 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창립 10주년]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개최 결과 (9/11)
2.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발간
3.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 결과
4.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명예회장 위촉패 전달식 개최 결과 (9/8)
5.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 설명회 개최 결과 (9/15)

##### ■ 본부 소식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본투라이드 (Born to ride)
2. 유엔글로벌콤팩트 콩고민주공화국협회 설립
3. 2017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주요 행사 안내

## ■ SDGs 뉴스

1. [SDG 11]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 서울특별시
2. [SDG 8] ILO 총장 "한국 4대협약 비준해야...노총, 노동자에 다가서야"

## ■ 회원사 뉴스

1.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선미라),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2.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참가
3. DGB금융,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4. CJ그룹, 포천 '세상바꾼 혁신기업'에 국내기업중 첫 선정

## ■ CSR 뉴스

1. [행 사]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2. [트렌드] '다우존스 지속가능 월드지수'에 국내 기업 23개 편입
3. [트렌드] EU식 '사회적 책임 공시제' 도입... 기업 "착한 순으로 줄세우기냐"
4. [트렌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한 국가, 사회책임경영 뛰어나
5. [트렌드] "美 혁신기업, 여성 이사 비율 높다"...한경연, 실리콘밸리 기업 지배구조  
트렌드 분석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7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창립 10주년]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개최 결과 (9/1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 9월 11일(월), 워커히 호텔 비스타홀에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개최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본 행사는 10년 간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 확산 및 의제 설정,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온 협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UNGC 회원 기업 CEO,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인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영사에서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은 “오늘의 한국협회가 있기까지 동참해주시고 UNGC의 가치와 원칙을 전파하는데 힘을 모아주신 모든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협회는 다음 10년을 위해 회원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정부,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음세대를 양성하고, 유엔 및 지역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 한국이

아시아의 CSR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환영 인사와 함께 협회의 향후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UNGC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10주년을 맞은 UNGC 한국협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리세 사무총장은 “지난 달 방한을 통해 한국의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한국협회의 지난 10년 간의 성장과 UNGC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에 매우 감명 받았습니다”라며, “각국의 기업들이 SDGs 등 국제적인 공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UNGC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하고, 이러한 노력에 한국협회 및 회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분야 10대 원칙에 기반한 UNGC 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모범사례며, 또한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마땅히 유념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UNGC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이룩하는데 여기 계신 기업 지도자 분들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에서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UNGC 한국협회의 지난 10년 간의 활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담은 영상을 통해 UNGC 한국협회의 과거와 미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본 행사에는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명예회장 위촉과 함께 첫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게오르그 켈 UNGC 초대 사무총장과 주철기 UNGC 한국협회 초대 사무총장의 도움으로 2007년 UNGC 한국협회가 창립될 수 있었습니다”라며, “저의 UN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UNGC 한국협회도 1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이 감명 깊습니다”라고 소회를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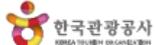
또한 반 명예회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를 통해 기업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UNGC 한국협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이며, 저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명예회장으로서 한국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UNGC 가치대상(UNGC Value Awards)’ 시상식 및 ‘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본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 부문),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부문), △KT, △LG전자, △SK telecom, △DGB금융지주(기업 부문), △유한킴벌리, △삼덕통상(중소·중견기업 부문), △한국인권재단(비영리 부문) 등 지방자치단체, 기업, 비영리단체 10곳이 기업 사회적 책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UNGC 가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2017 UNGC Value Awards / 가치 대상

분류	수상기업	상명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opera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	서울시 청렴클러스터, UNGC 반부패 프로젝트, Youth Program 등 우수 민관 파트너십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for Diversity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사회 내 다양성 제고 노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Community Empowerment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SDG Pioneer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가상투어 사업을 통한 SDGs 확산 기여
	 LG전자	Corporate Sustainability Leader	산업계 지속가능경영 선도, UNGC 가치 확산 기여
	 SK telecom	Social Impact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DGB금융지주 DGB	Sustainable Finance	녹색금융, UNGC 이슈플랫폼 참여를 통한 금융분야의 선도적 리더십
중소, 중견기업	 유한킴벌리	Smart Corporate Culture	우수 지속가능경영 모범적 기업문화 (스마트워크 등)
	 SANDUKTONGSANG Co., Ltd.	Business for Peace	개성공단 내 사업 운영을 통해 평화 증진에 기여
비영리	 한국인권재단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Frontier of Business &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책 제안, 기업과 인권 인식 제고 활동



한편, 'UNGC 가치대상'을 수상한 10곳을 포함,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해양환경관리공단, △한전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두산중공업, △CJ대한통운, △산업정책연구원, △환경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한국해비타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EB하나은행, △예금보험공사, △CJ제일제당, △BEXCO, △강원랜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등 UNGC 회원 기업 및 기관 대표 31인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지지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과 정책에 내재화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 CEO Commitment to SDGs / 지지 선언

 시경씨	 조희진	 김희진	 김태훈
 박재규	 김.오.박	 조.희.진	 황승희
 김영진	 김.영.진	 최.영.진	 이.의.보
 장.병.국	 김.영.진	 장.영.진	 정.영.수
 최.영.진	 박.영.진	 So Young Sim	 김.영.진
 Chang-Sub, Moon	 Kim Young Sun	 장.영.진	 이.영.진
 Jung - park	 K/B Choe	 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최.영.진	



끝으로 본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가 UNGC 한국협회 친선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임형주 친선대사는 축하공연으로 '아베 마리아(Ave Maria)',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등을 열창하며,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UNGC 한국협회의 10년 간의 활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은 그 간 맺은 결실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자, 회원사 및 기업,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향후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견고한 협력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가치대상을 수상한 10곳의 기업 및 단체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SDGs 지지를 서약한 기업과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400여명의 내외귀빈 여러분들과, 지난 10년 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회원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발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유엔, 정부,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SDGs의 이행과 사회 변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SDGs라는 야심찬 목표의 성공을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DGs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새로운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30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보여줍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SDGs를 기업의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회원사들도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사회투자, 사회공헌, 민관협력 등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SDGs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의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공유하고자 2016년 <Collective Actions of UNGC Korean companies in support of SDGs> 발간에 이어, 올해 한국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총 28개의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참여하였으며, SDGs와 연계한 경영 비전, 핵심 전략, 정책 및 활동 등을 담았습니다.

**참여 회원**

BEXCO,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DGB금융지주, KEB하나은행, KOTRA, KT, LG전자, LG화학, SK텔레콤, 강원랜드,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서울특별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한은행, 아모레퍼시픽, 예금보험공사, 유한킴벌리, 코웨이, 태광실업,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필립모리스

동 사례집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10주년 기념 행사인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에서 UNGC 한국협회 회원, 정부,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SDGs 달성을 위한 행보를 점검하고, 전세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 기업 및 기관들의 SDGs 달성 노력을 계속 점검하고 공유하면서, SDGs 내재화와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SDGs 사례집 바로가기](#)

### 3.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 결과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통합 및 경제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SDGs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30 SDGs 달성에 동참하기 위한 국내 비즈니스 리더들의 “SDGs 지지 서약”을 기획하였습니다. 금번 지지 서약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31 곳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여해주셨으며, 각각의 성명서는 기업별·산업별 특성을 살린 SDG Goal 과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금번 CEO 지지 서약에 참여한 회원사 기업·기관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기타 국내 이해관계자의 SDGs 인식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SDGs CEO 지지 서약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각 기업/기관별 지지 서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

기업명	SDG Goal
아모레퍼시픽	[SDG 3, 5]
백스코	[SDG 5, 7, 8, 9, 13, 17]
CJ 제일제당	[SDG 2, 3, 8, 12, 15, 17]
CJ 대한통운	[SDG 1, 8, 13, 17]
DGB 금융지주	[SDG 8, 12, 13]
두산중공업	[SDG 3, 4, 6, 7, 13]
산업정책연구원	[SDG 8, 9, 10, 17]
강원랜드	[SDG 4, 8, 11, 15]
KEB하나은행	[SDG 4, 7, 13]
한전KDN	[SDG 7, 13]
한국중부발전	[SDG 7, 13, 16]
한국항공공사	[SDG 4, 8, 9, 12, 13]
예금보험공사	[SDG 4, 16]
한전산업개발	[SDG 1, 7]
해양환경관리공단	[SDG 13, 14]
한국관광공사	[SDG 4, 8]
KT	[SDG 3, 7, 9]
한국수자원공사	[SDG 6, 7, 9, 11, 13, 17]
LG전자	[SDG 3, 7, 8, 11, 12]
한국토지주택공사	[SDG 11]
삼덕통상	[SDG 1, 3, 4, 9]
성동구도시관리공단	[SDG 3, 5, 8, 13]
성남도시개발공사	[SDG 5, 8, 11]
서울특별시	[SDG 3, 8, 10, 13]
SK텔레콤	[SDG 9, 16]
유한킴벌리	[SDG 3, 11, 13, 15]
부천여성청소년재단	[SDG 3, 5, 8]
한국해비타트	[SDG 1, 6, 11, 17]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SDG 4]
한국인권재단	[SDG 4, 16]
환경재단	[SDG 13]

\*기업·기관 영문명 순으로 나열

- [지지 서약 상세 Action Plan 바로 가기](#)

#### 4.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명예회장 위촉패 전달식 개최 결과 (9/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9월 7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고 UNGC 한국협회 이사진 상견례 조찬회 겸 명예회장 위촉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동 전달식에 이동건 회장, 협회 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기문 명예회장의 위촉을 환영하며 패를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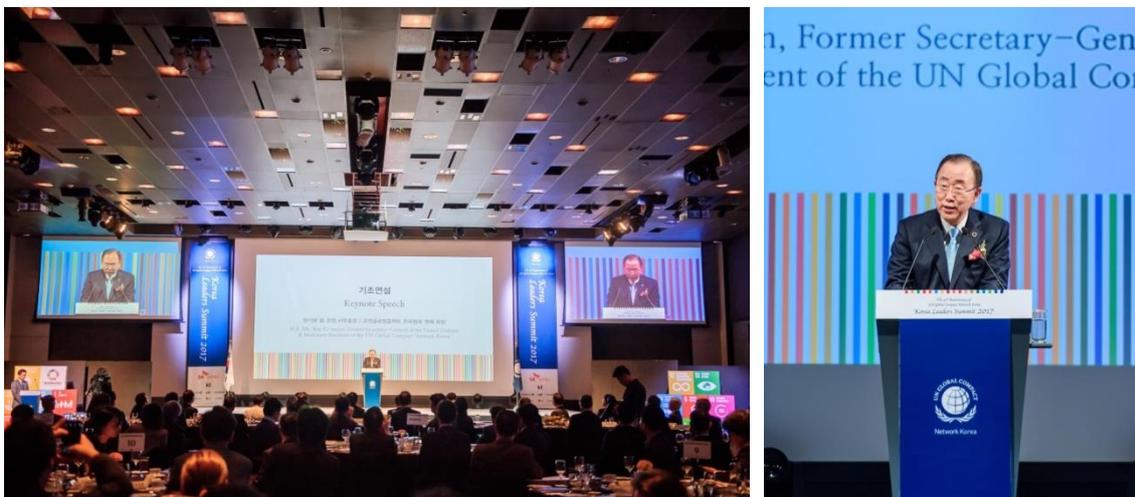
먼저, 이동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반 총장님을 명예회장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협회의 발전 및 기업 지속가능성 확산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기문 명예회장은 위촉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2007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UNGC 한국협회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큰 성과이며, 앞으로도 유엔과 기업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하는데 UNGC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촉패 전달식에 이어 반기문 명예회장은 9월 11일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인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에 참석하였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 UNGC를 통해 기업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며, “SDGs와 파리 기후협약 이행에 있어 기업의 전례 없는 협력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UNGC의 역할이 매우 크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UNGC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활동에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5.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 설명회 개최 결과 (9/1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함께하는  
**Sustainable Mega Sport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9월 15일(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와 함께 '지속가능한 메가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본 설명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UNGC 회원이자 대회 공식파트너 및 공식스폰서(14개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성 활동을 소개하고,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구현을 위해 상호노력하기로 합의하고, UNGC 회원사이자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들과 공동노력 캠페인 및

활동을 전개할 것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9월 11일(월)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행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소개부스를 마련하고, 마스크트인 수호랑, 반다비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월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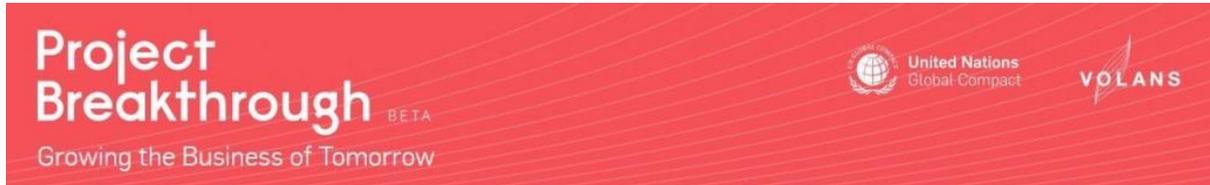
이번 설명회는 공동노력 캠페인의 첫 단추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UNGC 한국협회 업무협력 배경 소개와 함께 '평창 지속가능성 파트너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날 대회 공식파트너인 KT, 코카콜라와 공식스폰서 KEB하나은행, 네이버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행사 구현을 목표로 각각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얼마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경제, 환경, 사회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스포츠로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타 공식파트너 및 공식스폰서들과 본 캠페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10월 공식파트너 및 공식스폰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메가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대회 후원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부 소식

###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본투라이드 (Born to ride)



UNGC 한국협회는 민간부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볼란스(Volans)가 추진하고 있는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Breakthrough Innovation Project)'를 소개합니다.



*“블라블라카는 사용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블라블라카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리더: 프레데릭 마젤라(Frédéric Mazzella), 블라블라카(BlaBlaCar) CEO
- 장소: 프랑스 파리

지난 2003년, 컴퓨터 과학자 프레데릭 마젤라(Frédéric Mazzella)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파리 근방에 사는 가족들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기차표가 이미 매진되었고 자가용도 없던 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목적지가 같은 차에 합승하여 연료비를 공유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결국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목적지로 향하던 중에도 주변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라는 것에 주목하였고 기차표를 구매하듯이 빈좌석이 있는 자가용 또한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라블라카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합승을 돕는 통로로서 보다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함께하는 주행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합승이란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마젤라의 블라블

라카가 사람과 신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동수단 네트워크를 창설함으로써 프랑스의 장거리 주행 문화에 미친 창조적 영향력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날 블라블라카는 유럽, 멕시코 및 인도에 걸쳐 22개 국가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이동수단 공유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Frédéric Mazzella, CEO, BlaBlaCar  
프레데릭 마젤라 블라블라카 최고경영자

블라블라카는 상호 신뢰로 형성된 공동체를 핵심 성공요인으로 여깁니다. 런던의 지하철을 타보면 누구나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블라블라카의 회원들은 서로의 친화력을 ‘블라(Bla)’, ‘블라블라(BlaBla)’ 혹은 ‘블라블라블라(BlaBlaBla)’로 평가하여 서로를 검증합니다. 최근 발간된 [뉴욕대학교 보스턴경영대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들이 그들의 직장 동료 및 이웃들 보다 이동수단을 공유하는 회원 동료들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신뢰가 블라블라카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블라블라카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여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블라블라카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 주행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라블라카의 장거리 합승 사업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원 공유는 환경의식이 있는 미래지향적 시민들의 생활방식일뿐 아니라 유망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블라블라카는 합승 비용의 약 10%를 수수료로 책정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블라블라카는 지난 2년동안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및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개발도상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개된 회사 및 사례는 토론과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선별한 것으로,  
개별적인 회사나 개인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 2. 유엔글로벌콤팩트 콩고민주공화국협회 설립



모니크 기에스크(Monique Gieskes) 회장이 유엔글로벌콤팩트 콩고민주공화국협회 창립에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있다.

좌측부터 마크 무디 스튜어트(Mark Moody-Stuart)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 이사장,

로버트 슈데봄(Robert Schuddeboom) 주콩고민주공화국 네덜란드 대사, 마만 삼보 시디코(Maman Sambo Sidikou)

사무총장 특별대표, 치방구 카라라(Tshibangu Kalala) 콩고민주공화국 부총리

(2017년 9월 7일, 킨샤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콩고민주공화국협회는 9월 7일 수도 킨샤사에서 공식 창립되었습니다. 협회가 주관하고 주콩고민주공화국 네덜란드 대사관이 후원한 창립 기념식에는 150 명이 넘는 기업, 유엔, 시민단체,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4개 부문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모니크 기에스크(Monique Gieskes) 콩고민주공화국협회 회장은 이번 콩고민주공화국협회의 설립이 민간부문에는 “필수적인 진보”가 될 것이며, 기업들에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크 무디 스튜어트(Mark Moody-Stuart)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 이사장은 이번 창립기념식을 ‘역사적인 순간’이라 칭하며, 참석기업들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SDGs의 성공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국 협회 없이는 SDGs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전세계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국 협회를 통해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위급 연사로는 로버트 슈데봄(Robert Schuddeboom) 주콩고민주공화국 네덜란드 대사, 마만 삼보 시디코(Maman Sambo Sidikou) 사무총장 특별대표, 치방구 카라라(Tshibangu Kalala) 콩고민주공화국 부총리가 참석하였습니다.

- [본문 보기](#)

### 3. 2017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주요 행사 안내



일시 및 장소	행 사 명
9 월 18 일 (뉴욕 UN 본부)	United Nations Private Sector Forum 2017
9 월 20 일 (미국 뉴욕)	The Future of Humanitarian Response
9 월 21 일 (미국 뉴욕)	UNGC Leaders Summit 2017
11 월 1-2 일 (콜롬비아 보고타)	2017 Business for Peace Annual Event
11 월 7 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Anti-Corruption and Good Governance Special Event 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COSP
11 월 27-29 일 (스위스 제네바)	2017 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SDGs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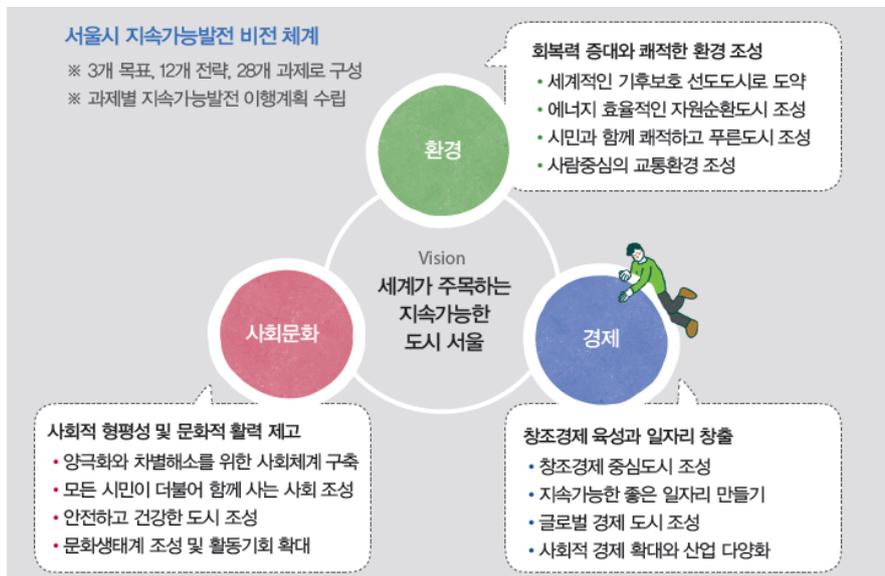
## 1. [SDG 11]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 서울특별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은 적절한 주거지와 기초 서비스 제공 및 균형 잡힌 도시계획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을 위한 행동 플랫폼 ‘[시티스 프로그램\(Cities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플랫폼은 공평한,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그리고 복원력 있는 도시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 빈곤 퇴치, 산업화 등 여러 분야와 긴밀히 연결된 중대한 이슈인 만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회원들 역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였으며, 이를 체계화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체계’를 기반으로 21세기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파악해 시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목표와 28개 과제를 담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 및 과제'는 시민들이 참여해 TOE 에너지를 절감·대체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없애고 세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등 분야별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12개 전략 28개 과제
 <p>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p>	<b>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b> 과제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과제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b>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b> 과제 3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과제 4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과제 5   물순환을 개선한다.
	<b>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b> 과제 6   대기질을 개선한다. 과제 7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과제 8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b>전략 04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b> 과제 9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p>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p>	<b>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b> 과제 1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과제 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과제 3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과제 4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b>전략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b> 과제 5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과제 6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b>전략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b> 과제 7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제 8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b>전략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b> 과제 9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과제 10   생활 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p>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p>	<b>전략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b> 과제 1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과제 2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b>전략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b> 과제 3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과제 4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b>전략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b> 과제 5   외국인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과제 6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b>전략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b> 과제 7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과제 8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과제 9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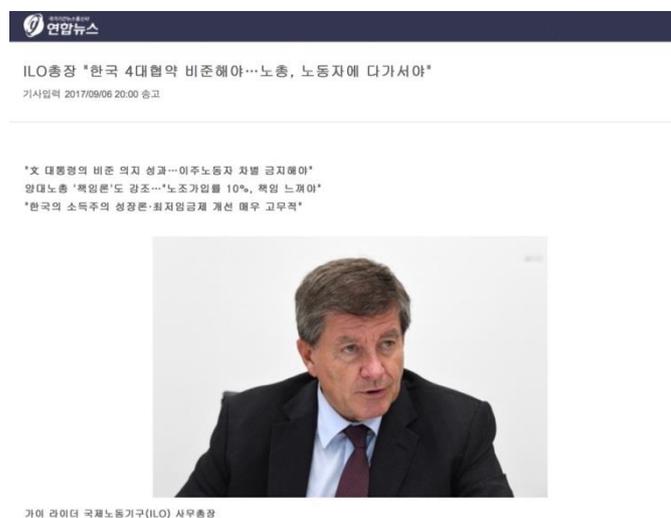
그 결과 서울시는 네덜란드의 도시·지역계획·디자인 컨설팅회사 아카디스가 발표하는 "지속가능도시 지수 2016" 평가에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순위 세계 7위를 차지(아시아 도시 중 2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6년 3월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오픈데이터의 선두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자랑하는 도시로 꼽으며 '세계 지속가능한 도시 7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선 서울특별시의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은 이제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공간의 부정적 요소들을 줄여나가면서 지역의 삶을 넘어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성 향상시키는 선진도시로서의 서울을 기대해봅니다.

- [SDG 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알아보기](#)

- [UNGC 한국협회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바로가기](#)

## 2. [SDG 8] ILO총장 "한국 4대협약 비준해야...노총, 노동자에 다가서야"



-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6 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한국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지만, 노조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전체 노동력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함
- 특히 라이더 총장은 한국이 ILO 4 대 핵심협약 비준해야 함을 역설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협약 비준 의지를 본 게 이번 방한의 성과로 강조함

- [원문보기 \(연합뉴스\)](#)

# 회원사 뉴스

## 1.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선미라),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브리핑포토]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선미라),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지난 10년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양윤모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7-09-12 10:10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선미라)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서 수여하는 가치대상을 수상했다.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11일 2017 UNGC 가치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후 이동진 UNGC 한국협회 회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등 관계자와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인권재단은 지난 11일 개최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에서 지난 10년간 사회적 책임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영리부문 가치대상을 수상함

- [원문보기 \(브리핑경제\)](#)

## 2.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참가

###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참가

입력시간 | 2017.09.12 17:14 | 김아라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1일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달성을 위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에 참석해 지지 서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UNGC의 400여 가입 회원사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난 10년간 확산된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슈와 의제 설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UN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글로벌 개발 의제로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식량 등의 이슈를 포함한 의제다.



사진=성남도시공사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1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개최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에서 SDGs 지지 서약에 참여
- 공사는 2013년 기초 지방공기업 최초로 UNGC에 가입한 이후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개 원칙 준수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였음
- 황호양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SDGs 목표달성을 위한 CEO 서약식을 통해 공사는 이윤창출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고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힘
- [원문보기 \(이데일리\)](#)

### 3. DGB금융,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 파이낸셜 뉴스

## DGB금융,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최재성 기자 | 입력 : 2017.09.12 15:35 | 수정 : 2017.09.12 15:35



지난 11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된 '2017 UNGC Value Awards'에서 김경룡 DGB금융지주 부사장(오른쪽)이 지속가능금융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지난 11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된 '2017 UNGC 벨류 어워즈' 시상식에서 DGB금융그룹이 금융부문으로 유일하게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상'을 수상함.
- DGB금융그룹은 녹색금융활동과 수자원관리책무 등 UNGC 이슈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선도적 리더십으로 수상함.
- 또한 DGB사회공헌재단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실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의 책임을 수행한 점도 공로로 인정받음.

-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4. CJ그룹, 포천 '세상바꾼 혁신기업'에 국내기업중 첫 선정

**MK** 뉴스

##### **CJ그룹, 포천 '세상바꾼 혁신기업'에 국내기업중 첫 선정**

노인일자리 '실버택배' 평가

기사입력 2017.09.08 23:38:27 | 최종수정 2017.09.08 23:40:11

CJ그룹(회장 이재현·사진)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뽑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50'에 선정됐다. 8일 CJ그룹은 포천이 지난 7일 발표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50' 명단에 국내 기업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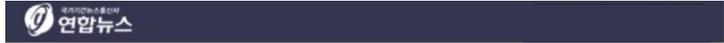
올해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50'에는 JP모건(1위) 애플(3위) 월마트(7위)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등재됐다. CJ그룹은 주요 글로벌 회사들의 뒤를 이어 38위에 올랐다. 이번 명단에는 아시아 기업 총 7곳이 포함됐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CJ그룹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포천은 2015년부터 사회·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사업 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매년 상위 50개 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CJ그룹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지거 뽑은 '세상을 바꾸는 50대 혁신기업'에 선정됨
- 그룹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의 '실버 택배'를 통해 국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온 점에서 높게 평가됨.
- CJ대한통운은 이밖에도 2013년 보건복지부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
- [원문보기 \(매일경제\)](#)

# CSR 뉴스

## 1. [행 사]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기사입력 2017/09/11 15:19 송고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UNGC 한국협회는 11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협회 회원기업 CEO(최고경영자),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을 열어 반 전 사무총장을 명예회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 UNGC 한국협회는 11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을 열어 반 전 사무총장을 명예회장에 위촉함
- 반 전 사무총장은 유엔 재임 기간 UNGC 이사회 의장으로서 UNGC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UNGC를 유엔 차원의 주요 어젠다로 격상시킴
- [원문보기 \(연합뉴스\)](#)

## 2. [트렌드] '다우존스 지속가능 월드지수'에 국내 기업 23개 편입



‘다우존스 지속가능 월드지수’에 국내 기업 23개 편입

기사입력 2017.09.07 16:50:49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23개 한국기업이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인덱스, 스위스 투자전문기관 로베코샘과 함께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하 DJSI)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번호	산업분류	기업명	DJSI Korea		DJSI Asia Pacific		DJSI World	
			편입	비고	편입	비고	편입	비고
1	가스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			●	5년 연속		
2	가전 및 여가용품	LG전자㈜	●	9년 연속	●	8년 연속	●	6년 연속
3	개인용품	㈜LG생활건강	●	5년 연속	●	8년 연속		
4		㈜아모레퍼시픽	●	8년 연속				
5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	7년 연속	●	5년 연속		
6		지에스건설㈜	●	3년 연속	●	8년 연속		
7		현대건설㈜	●	9년 연속	●	8년 연속	●	8년 연속
8	건축자재	(주)LG하우시스	●	3년 연속				
9	금융 서비스	미래에셋대우㈜	●	8년 연속	●	8년 연속	●	6년 연속
10		삼성증권㈜	●	9년 연속	●	8년 연속	●	8년 연속
11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	7년 연속				
12	기계 및 전기설비	두산인프라코어㈜	●	8년 연속				
13		두산중공업㈜	●	4년 연속				
14		삼성중공업㈜	●	7년 연속	●	7년 연속		
15	내구재	코웨이㈜			●	5년 연속	●	2년 연속
16	담배	㈜케이티앤지	●	신규(재편입)				
17	무선통신	SK텔레콤㈜	●	신규(재편입)	●	9년 연속	●	10년 연속
18	반도체	㈜SK하이닉스	●	7년 연속	●	8년 연속		
19	복합산업	SK㈜	●	8년 연속	●	6년 연속	●	6년 연속
20		㈜두산	●	4년 연속	●	4년 연속		
21		삼성물산㈜	●	신규(재편입)	●	2년 연속	●	신규(재편입)
22	복합여가	㈜강원랜드	●	7년 연속	●	7년 연속	●	5년 연속
23	상용서비스 및 공급업	한진KPS㈜	●	9년 연속				
24	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	6년 연속			●	6년 연속
25	석유 및 가스	S-Oil㈜	●	9년 연속	●	8년 연속	●	8년 연속
26		SK이노베이션㈜	●	신규	●	신규	●	신규
27	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	9년 연속	●	6년 연속	●	5년 연속
28		삼성화재해상보험㈜	●	9년 연속	●	5년 연속	●	4년 연속
29	식료품	CJ제일제당㈜	●	3년 연속	●	3년 연속		
30	운수	현대글로벌서비스㈜	●	3년 연속	●	3년 연속		
31	유선통신	㈜케이티			●	9년 연속	●	8년 연속
32	은행	㈜BNK금융지주			●	3년 연속		
33		㈜DGB금융지주	●	9년 연속	●	8년 연속		
34		㈜KB금융지주	●	9년 연속	●	9년 연속	●	2년 연속
35		㈜신한금융투자회사	●	9년 연속	●	9년 연속	●	5년 연속
36		㈜하나금융지주			●	2년 연속		
37	자동차	현대자동차㈜	●	신규				
38	자동차 부품	한국타이어㈜	●	7년 연속	●	5년 연속	●	2년 연속
39		현대모비스㈜	●	8년 연속	●	8년 연속	●	7년 연속
40	전력 유틸리티	한국전력공사	●	3년 연속	●	4년 연속		
41	전자장비 및 부품	삼성SDI㈜	●	3년 연속	●	9년 연속	●	3년 연속
42		삼성전기㈜	●	9년 연속	●	9년 연속	●	9년 연속
43		엘지디스플레이㈜			●	5년 연속		
44	철강	㈜포스코	●	9년 연속	●	9년 연속	●	13년 연속
45		현대제철㈜			●	9년 연속		
46	컴퓨터 하드웨어 및 사무기기	삼성전자㈜	●	신규(재편입)	●	신규(재편입)	●	신규(재편입)
47	항공	아시아나항공㈜	●	9년 연속				
48	화학	㈜LG화학	●	9년 연속	●	9년 연속		
49		OCI㈜	●	9년 연속				
50		SK케미칼㈜	●	8년 연속				
51		롯데케미칼㈜	●	9년 연속	●	7년 연속		
52		한화케미칼㈜	●	5년 연속				
Total				45		39		23

한국생산성본부,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결과 발표

-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 23개 한국기업이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월드지수'에 등재됨
- DJSI는 유동 시가총액기준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월드지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아시아퍼시픽지수',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코리아 지수'로 구성됨
-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평가 점수는 72.2점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점수인 75.3점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배구조, 인권, 기부 투명성 부문의 점수가 각각 51.3점, 43.2점, 45.2점에 그쳐 평균인 72.2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원문보기 \(매일경제\)](#)
- [DJSI 2017/18 평가결과 다운로드 \(한국생산성본부\)](#)

### 3. [트렌드] EU식 '사회적 책임 공시제' 도입... 기업 "착한 순으로 줄세우기냐"

한국경제

프린트 닫기

#### EU식 '사회적 책임 공시제' 도입... 기업 "착한 순으로 줄세우기냐"

입력 2017-09-11 17:54 수정 2017-09-11 22:26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첫 민간 출신 금융감독원장인 최흥식 원장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치중했던 금감원의 역할을 소비자 보호 쪽으로 선화하겠다는 의미다.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이른바 '착한 기업'을 국민·투자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선 "대형화 경쟁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치중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개편을 밝힘.
- 공시에 포함할 CSR 항목으로 노사관계, 환경보호, 저출산 대응 노력,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등을 검토함.
- 또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역할과 기능 개편 방침도 발표.

- [원문보기 \(한국경제\)](#)

#### 4. [트렌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한 국가, 사회책임경영 뛰어나

**MK** 뉴스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한 국가, 사회책임경영 뛰어나

기사입력 2017.09.06 17:56:02 | 최종수정 2017.09.06 20:39:55

##### ■ `한·중·일 금융협력위` 세미나



6일 오전 금융산업협력위원회가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영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승석 미래에셋대우 이사,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황건호 서강대 교수, 성희철 인하대 교수,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한·중·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가 지난 6일 개최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영향 분석'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코드(SC)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사회책임경영(ESG) 수준이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함.
-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이 공개한 2016년 MSCI&PRI 공동조사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회책임경영 점수는 미도입 국가들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문보기 \(매일경제\)](#)

## 5. [트렌드] "美 혁신기업, 여성 이사 비율 높다"...한경연, 실리콘밸리 기업 지배구조 트렌드 분석



"美 혁신기업, 여성 이사 비율 높다"...한경연, 실리콘밸리 기업 지배구조 트렌드 분석

기사입력 2017.09.13 18:17:44 | 최종수정 2017.09.13 18:17:44 | 윤지현 | yune.jiwon@gmail.com



▲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혁신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로고. (사진 = 웹페이지 캡처)

한국경제연구원이 '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차등의결권 도입 증가 △여성이사 비율 증가 △주주행동주의 확대 등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차등의결권 도입 증가 △여성이사 비율 증가 △주주행동주의 확대 등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는 창업주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임
- 또한, 보고서는 이사 시차임기제, 이사 과반수투표제, 주식 보유 가이드라인 등의 트렌드가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로 꼽음.

- [원문보기 \(CNB저널\)](#)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9 월 5 일부터 9 월 18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 입니다.

- 비엘에이치아쿠아텍

## 2. COP/COE 제출회원

9 월 5 일부터 9 월 18 일까지 8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남부발전
- 유한킴벌리
- NH 투자증권
- 한국남동발전
- 두산건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사회보장정보원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 2017년 3/4 분기 연회비 납부 회원

한국마사회,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태광실업, 강동구도시관리공단, 피플포피스, SK이노베이션, CJ대한통운, LG전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국제봉사기구, 롯데제과, (주)두산, 한국관광공사, KT skylife, KT sat, (주)나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네이버

※ 3/4 분기 납부기한: 2017년 9월 29일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소 완 연구원